

메마른 가슴 활짝 열게 해 주는 '開心'의 도량

기도하기 좋은 지장도량- 서산 개심사

개심사 가는 길이 예쁘다. 개심사로 향하는 647번 지방도는 운산면 목장지대를 관통한다. 뾰족하지 않고 완만한 곡선을 가진 언덕들이 포개진 형국이다. 붓꽃한 언덕들을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하다. 운산면의 목장은 1960년대 후반 김중필씨가 조성했다. 정식 명칭은 농협 가족개량사업소다. 봄이면 능선을 따라 벚꽃이 가득 피워 장관을 이룬다.

지난 9월에는 진입로 공사를 마무리해서 입구가 정갈하다. 산책 코스로도 환상이다. 목장지대를 지나면 신장저수지가 나온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예쁜 다리도 있고 가장자리에 물풀도 있어 제법 운치가 있다. 작은 섬터도 마련돼 있어 숨 고르고 가도 좋다.

역시 최근에 넓혀진 주차장서 개심사 경내까지는 그리 멀지 않다. 10여분, 숲속을 오목오목 짙어 가면 돌계단 끝에 절집이다. 해탈문 들기 전 만나는 외나무다리는 개심사가 유명해지는데 큰 일등공신이다. 반듯한 직사각형 연못을 가로질러, 큰 통나무 기둥을 길게 반갈라, 딱하니 걸쳐 놓았다.

초겨울 길목서 바라본 연못 주변 풍경은 우아하고 고상하다. 그래서인지 관람객들에게 카메라 셔터가 제일 많이 눌러지는 곳이다. 수면에는 떨어진 낙엽이 유유히 떠다니고 연못을 에두른, 아름드리 팽나무, 굴참나무의 울긋불긋한 이파리 등이 어우러지는 풍경은 볼거리를 연상시킨다.

외나무다리를 건너지 않아도 경내로 들 수 있지만, 일부러 걸음 한 이틀 가운데 옆에 아홉은 이 풍경에 반해 다리를 건넌다. 개심사가 있는 곳은 꼬끼리를 닮았다고 해 상왕산이라 불린다. 꼬끼리가 목이 마르면 산새가 기우니 우물을 만들어 이를 해소했다고 전한다.

개심사는 뜻 그대로 '마음을 여는 절'이다. 백제가 망하기(660년) 불과 6년 전인 의자왕 14년, 서기 654년에 창건되었으니 말 그대로 천년 고찰이다. 당시 절을 창건한 해감 스님은 절의 이름을 개원사(開元寺)로 했으나 고려 때인 1350년에 처능 스님이 중건하면서 오늘의 이름인 개심사로 개칭했다고 한다. 지금의 모습은 1955년 전면 보수 공사의 결과물인데 꼬끼리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연못을 지나면 해탈문, 안양루, 심검당, 대웅보전 등이 등장한다. 규모로 보아서는 작은 절이지만 어쩐지 차분한 기운이 절의 안팎을 휘감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굽어있고 배가 볼록한 나무기둥이 인상적인 심검당.

개심사 전각에는 특징이 있다. 각 기둥들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굽어있고 배가 볼록하며 위아래의 굽기가 다르다. 매끈하지 않고, 참 못생겼다. 나무를 전혀 손질하지 않고 원래의 모습대로 갖다 쓴 탓이다. 대웅전만 빼고, 해탈문, 범종각, 심검당 등 대부분이 다 그렇다. 특히 범종각 지붕을 받치고 선 네 개의 기둥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개심사가 좋은 이유로 이 기둥을 드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절다운 고즈넉함이 많아서 일까 개심사는 기도하기 좋은 절이다. 수행자들의 향훈이 서려 있기에 더욱 그렇다. 한국불교 선종 중흥조인 경허 선사가 이곳서 주석하며 정진한 선기도 어려웠다. 그 뿐이 아니다. 경허 선사의 수법 제자였던 혜월 스님도 이 사찰서 인가를 받았다고 하니 선종전각의 유서가 깊은 가람이다.

그리 잘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사실 개심사는 4대 지장 기도도량으로도 유명하다. 명부전이 있어서인지 노인들이 자주 개심사를 찾는다고 한다. 명부전

나무 기둥 살린 자연스런 미학 돋보여 경허선사 주석처, 혜월 스님 인가 받아 지장보살 모신 명부전 인상적

은 오른쪽으로 좀 떨어져 있다. 대낮인데도 어두운 분위기와 무섭게 생긴 신상들 때문인지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마치 저승에 와서 심판을 받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문 옆으로 보면 금강역사가, 지장보살 좌우엔 명부의 재판관 10명이 노려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생을 위해 변론 역할을 맡아서인지 오직 지장보살만이 지긋이 응시하고 있다. 그 중 다섯 번째가 염라대왕이라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이 심판을 할 때 사람들에게 묻는다고 한다. 이생에서 개심사 명부전을 몇 번 참배했느냐고. 진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개심사 명부전을 참배하면 공덕이 쌓인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아무튼 좀 떨어져 있어 놓치기 쉽지만 염라대왕의 질문에 당당히 답하려면 개심사를 방문할 때 꼭 명부전도 참배하자.

서산 개심사= 김주일 기사



꼬끼리 형상인 개심사의 화기를 다스리기 위해 만든 연못.



휘어진 나무를 그대로 살린 기둥이 자연스런 파격미를 드러내는 개심사. 전망이 빼어나지 않지만 금북정맥의 험하지 않은 산세와 내포의 넉넉한 분위기가 물씬 묻어나는 절집이다.

주변 볼거리

「백제의 미소」...서산 마애삼존불상

운산면 용현리에 마애삼존불상(사진·국보84호)이 있다. 바위 한 면에 본존여래상, 보살입상, 반가상을 조각했는데 그 모습이 우아하고 곱다. 이들 마애불의 미소는 '백제의 미소'로 불린다. 여느 돌부처처럼 위엄과 무게감이 느껴지는 표정 대신 해맑은 웃음을 머금고 있다. 그 표정이 어찌나 예쁘니 보고 있으면 덩달아 미소 짓게 된다. 암벽에 부조로 새겨진 마애불상으로 중앙에 여래입상, 좌측에 보살입상, 우측에 반가사유상이 조각돼 있다. 1958년에 처음 발견돼 일반에게 공개됐으며,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면 관리사무소에 문화해설사가 상주하고 있으니 미리 예약하면 된다. (041)660-2538



해미음성...이국적 풍광 인기

해미음성은 다른 음성과 달리 성 뒤쪽 구간에는 성벽과 평지 사이에 골을 파놓음으로써 들판을 달려온 적군들이 골장 성벽을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해 두었다. 해미음성의 역사는 고려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지역은 왜구의 출몰이 극심했다. 사태의 심각성과 대책을 알고 조선 정부가 1417년 태종 17년이 되어서야 축조 사업을 시작, 세종 3년인 1421년에 이르러 완성된 군사 행정 시설이다. 음성이 활발할 당시에는 동헌을 비롯해 아사 및 작정 등의 건물들이 빼곡히 있었고, 개화기 때 조선 정부가 천주교도들에게 끔찍한 박해를 가한 슬픈 현장이기도 하다. 그 뒤로 망국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름답던 해미음성은 폐허가 되었다. 그러다 1974년에 동문과 서문이 복원됐고, 1981년 성내 일부를 발굴한 결과 현재의 동헌 서쪽에서 객사와, 현재의 아문 서쪽 30m 지점에서 옛 아문지가 확인되었으며, 관외의곽석장지가 발견됐다.

맛집&숙박

개심사 입구에는 **고목 나무가든**(산채 정식, 041-688-7787)을 비롯한 음식점이 두어 군데 있다. 해미음성 앞의 **시장순대**(041-688-4370)는 직접 만들어 파는 순대와 얼큰한 순대국밥 맛이 일품이다. 서산마애삼존불 입구의 **용현집**(사진 위·041-663-4090)은 잘게 간 미꾸라지와 밥, 소면을 함께 넣고 얼큰하게 끓인 어죽이 맛있다. 서산마애삼존불과 보원사지가 위치한 용현계곡의 맨 안쪽에는 숙박시설이 휴식공간을 두루 갖춘 **국립용현자연휴양림**(041-664-1971)이 자리잡고 있다. 용현리에는 **숲속의민박**(041-662-2121)을 비롯한 민박집도 여럿 있다.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화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인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수강생모집

전국 서울, 수원

구단구궁법

특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강 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불교연합회〉